

영화 속 영웅들과 함께한 ‘어린이날’

광주 대촌중앙초, 어린이날 축하 기념행사
선생님들 ‘캡틴아메리카 · 아이언맨’ 변신
최규남 교장 “학생들 꿈꿀 수 있는 학교”

꿈을 꾸게 하고 끼를 찾이주는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는 광주 대촌중앙초등학교(교장 최규남)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회가 주최한 ‘꿈과 희망이 샘솟는 어린이날’ 기념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학년 권예은 학생 회장을 중심으로 어린이날 축하 행사를 주관해 진행됐다. 아침 시간과 중간·점심시간을 활용해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과 함께하는 등 꽃길맞이, 학교와 마을에 관한 십자말풀이 응모 추첨, 과녁 맞히기 등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학교를 찾은 미블 히

어로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 맨’은 여러 교실을 방문해 사탕을 나눠주고 사진을 함께 찍는 등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 영웅들의 정체는 비밀로 남았으나 학교 관계자는 “교장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오늘 보이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어린이날 축하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이재린 학생회 부회장은 “우리가 기획한 행사에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다”며 “준비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행사를 마치고 친구들이나 선생님께서 칭찬해주는 반응이 좋고 모두가 행복해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촌중앙초 최규남 교장은 “학생들이 꿈꿀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나아가 건강한 민주 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고흥 청소년 미래, 진로체험
자유학기제가 책임집니다”



트의 이모저모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고흥 관내 고흥온마을학교협동조합, 해맑은팜, 거림수목원, 생태농원소양 등 10여개의 진로 체험처에서 나

온 대표와 회원들은 담당교사들에게 유망한 미래직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체험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고흥 시립책도서관(대표 이수일), ‘나의 경험은 누군에게 한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신혜숙(고흥 과역중)교사는 “진로체험과 자유학기제의 연중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육지원청과 공유할 수 있어서 더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2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진로체험처 소개와 자유학기제(년)제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했다.

고흥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 담당교사와 자유학기제 담당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진로체험전 선방 프로그램 활용방법, 꿈을 꾸는 진로체험처 소개, 내실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역량강화 시간을 제공하였다.

꿈길 활용교육은 고흥관내 진로 교사 대표인 고흥도화중 최광선 선생님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교사들은 진로체험전선방인 ‘꿈길’ 사이

순천 대 3년 연속 평생교육체재 지원사업 선정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 평생교육체재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교육부의 LIFE 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평생교육체재 지원 사업은 선 취업·후 학습 활성화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지역별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반대학 23곳, 전문대학 7곳 등 총 30곳으로 교육부로부터 총 234억 원을 지원받으며 사업 기간은 4년이다.

일반대학과 중 전남에서 유일한 사업수행대학인 순천대는 2017년 5억 9,000만 원, 2018년 6억 7,500만 원으로 이어 올해는 총 7억 3,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순천대는 전라남도·순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흥보는 물론 K-MOOC 공동 교과목 개발,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평생교육체제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시·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간·주말 수업은 물론 온라인 공개강좌인 S-MOOC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S-LIFE 장학금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성남 총장 직무대리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며 “평생교육 종장기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평생교육체제 2.0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대학의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규 학사학위 취득과정으로 운영되는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은 물류비즈니스학과와 융합산업학과, 산업동물학과, 정원문화산업학과,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전형과 특성화고등졸업 재직자 전형 등을 통해 매년 100명의 성인학습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지역공간 미래창조 정관직원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회순 이서직역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

광주체고 안세영, 뉴질랜드 오픈 우승

개인 첫 월드투어 우승…세계랭킹 23·11·18·15위 연달아 격파



광주체육고등학교 안세영(17, 세계랭킹 78위)이 뉴질랜드 오픈에서 세계랭킹 11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연달아 격파하고 5일 개인 첫 BWF(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 선수는 그동안 ‘현재 소녀, 중학생 태극마크, 최연소 국가 대표’ 등의 수식어가 주는 압박감에 시달려 왔다. 지난 4월 열린 배드민턴 한일 국가대항전에선 다카하시 사야카(세계랭킹 13위)에게 패하며 ‘최근 실력이 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안 선수는 뉴질랜드 오픈에 출전해 5월1일 32강에서 중국 젠 시아오신(세계 23위) 선수를 만나 1시간 23분이라는 긴 헤리를 벌였다. 1·2경기가 21-18, 18-21로 1대 1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3경기에 젠 시아오신 선수가 18-20으로 2점 앞서며 매치포인트(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를 만들었다. 1점만 주도 탈락하는 상황, 2점을 따내 동점으로 만들고 20-20) 1점을 준 후(20-21) 다시 3점을 연달아(23-21) 가져와 승리했다.

이후부터는 파죽지세였다. 16강에서 호주 킴 진징 선수 2대0(21-12, 21-15), 8강에서 미국 장 베이원(세계 11위) 2대1(17-21, 21-13, 21-16), 준결승에서 일본 오호리 야야(세계 18위) 선수도 2대1(21-17, 19-21, 21-13)로 격파했다.

결승에선 중국 리 쉐루이(세계

조인호 기자

무안교육참여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출범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지난 3일 지역 사회의 참여로 내실 있는 무안교육 구현을 위한 제1기 무안교육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무안교육참여위원회는 내부 당연직 위원 2명, 외부 위촉직 위원 28명으로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4명, 교직원단체 3명, 무안군 공무원 2명, 학계·교육계 4명,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7명, 군 의원 2명,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4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했다.

참여위원회는 2년의 임기동안 활동하며, 무안교육의 주요정책

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무안군 교육경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할 계획이다.

정재철 교육장은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무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서 앞으로 참여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무안교육 자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